



청소년문학 보물창고 2

# 핵폭발 뒤 최후의 아이들

구드룬 파운제방 지음 | 함미라 옮김 | 보물창고 펴냄  
128X188 | 값 13,800원 | 개정판 1쇄 2016년 07월 15일  
ISBN 978-89-6170-548-6 04850 | 232쪽  
분야 - 청소년 소설 | 대상 독자 - 초등 고학년, 청소년

## 주요 내용

여름 방학을 맞은 롤란트는 가족과 함께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가는 도중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섬광과 거센 폭풍을 몰고 온 핵폭발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평화롭던 세상은 폐허로 변하고 만다. 끔찍하게 다친 부상자들, 배고픔과 추위, 전염병 등의 고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처절한 삶을 이어 가고자 노력한다.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에 둘러싸이곤 한다. '아이들에게 핵폭발의 위험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어도 괜찮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핵의 위험과 두려움에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일깨우며 '인류의 양심을 뒤흔들어 깨우는 이야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읽기 전에

1. 우리가 흔히 핵에너지로 부르기도 하는 원자력은 무엇일까요?
2. 실제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해 알아보시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3. 만약 지금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상상해 보세요.

## 내용 알기

1. 주인공의 가족은 모두 몇 명인가요?
2. 핵폭발의 섬광을 쫓 사람들은 무슨 병에 시달려야 했나요?
3. 동생 케르스틴은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되었나요?
4. 쓰레기를 치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드레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무엇인가요?
5. 핵폭발이 있었던 다음 해에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6. 핵폭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까지 방사능의 피해를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깊이 생각하기

롤란트는 아빠로부터 학급을 넘겨받고 쉐벤보른의 최후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롤란트는 아이들이 서로 돕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법을 깨달아야 하며, 갈등을 폭력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여러분이 롤란트처럼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또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가요?